

II. 심포지움 초록

1. 環境保全에 關한 基本政策

金 政 鉉
環 境 廳

1. 序 論

環境汚染은 人間의 生活活動에 依해서 生成되는 것으로서 地域社會의 파괴를 招來하는 性格을 갖는다.

人間의 生活 活動 中에서도 産業活動은 經濟의 高度成長을 가져오며 따라 매우 活潑한 狀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副作用으로서도 또한 必然的 結果로서 環境汚染에 依한 被害가 多數發生하고 環境 파괴도 惹起시키고 있다.

따라서 經濟成長 政策과 環境保全政策 사이에는 恒常 平衡을 이루고 推進이 되어야만 適正한 環境을 保全할 수 있으며 그러한 平衡이 維持되지 않는 경우에는 必然코 所謂公害라고 하는 現象이 發生하는 結果가 된다.

兩者가 相殺效果를 갖는 程度로 強力한 政策을 取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調和를 提唱한다고 하더라도 꼭 兩者間의 優劣의 差가 불기 마련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類例에서 벗어나지 않고 先進 工業國과 같이 成長 政策에 比重을 더해 왔다고 하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工業化 政策을 통해서 經濟成長을 追求하고 있기 때문에 先進 工業國에서 볼 수 있었던 公害現象이 1962~1966의 第1次 經濟開發 計劃中에서 부터 進行되고 第2次 經濟開發 計劃中에는 더욱 進展되고 第3次 經濟開發 計劃中에는 本格化되고 第4次 經濟開發 計劃中인 지금은 이 이 더 放任할 수 없는 段階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不充分하고 不完全했던 公害防止法을 全面 改編하여 11章 70條 附則 4條로 된 環境保全法을 지난 77年 12月 31日자로 새로 制定하게 되었다.

環境保全法의 法的 性格은 環境保全이라는 綜合的인 性格을 띄게 되었고 轉換된 標識은 環境基

準 環境影響評價 總量規制 水系 및 大氣影響圈別 管理와 汚染被害에 對한 無過失 責任등 새로운 制度가 導入되어 앞으로는 廣域 管理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環境保全에 對한 正確한 方向 提示가 되는 것으로 본다.

2. 規制方法 및 手段

- (가) 環境基準에 依한 規制
- (나) 特別對策地域의 指定
- (다) 濃度規制와 總量規制
- (라)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採擇
- (마) 大氣 및 水質의 영향권별 管理
- (바) 排出施設의 設置規制
- (사) 土地利用 施設設置의 規制
- (아) 規制確保의 手段
- (자) 私法的 救濟手段

3. 汚染別 規制手段

- (가) 大氣汚染의 規制手段
- (나) 騒音 振動의 規制手段
- (다) 水質 및 土壤汚染의 規制

4. 費用負擔

5. 汚染防止施設業 産業廢棄物處理의 規制

6. 被害救濟

7. 對策機構

8. 環境保全法施行上の 問題點

- (가) 환경관계기술교육의 개발
- (나) 政府의 姿勢 및 行政能力
- (다) 財政的 基盤의 造成
- (라) 汚染實態의 기초 조사
- (마) 國民의 環境意識

2. 분노의 호기적처리

小 瀨 洋 喜
岐阜藥科大學 環境衛生學

日本에서는 분노를 비료로서 오래동안 사용해왔으나 1954년 日本學術會議가 「분뇨처리타개책」을 정부에 권고하여 그해 「清掃法」이 제정되고, 비료로서의 분노의 안전화·안정화를 도모해온 역사에